

“화순군 태양광허가 내주고 개발행위 불허 ... 담양군 주민 반대민원 이유 장례식장 불허”

# 일관성 없는 지자체 행정 ‘제동’

전남도 행정심판위,이례적 3건 인용·8건 일부 인용

태양광발전허가를 내준 뒤 개발행위를 불허하거나, 주민 반대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오락가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인허가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최근 열린 2016년도 제3차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과 담양군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이례적으로 인용했다. 개발 당사자나 건축주의 이익을 행정심판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 김모씨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과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3개월전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를 받고 토지를 구매한 뒤 2억5700여만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이 같은 화순군의 처분에 반발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 교수, 퇴직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는 격론 끝에 이 같은 화순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행정심판위는 “화순군 담당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한 입지라는 설명을 듣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아무리 태양광발전시설이 난립하고 있다해도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12월 장모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교통 지장, 주민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가 장례식장 신축이 허용되는 준공업지역으로, 왕복 4차선과 폭 약 2m의 갱이 있는 국도 24호선이 진입도로이며 인근에 다른 대규모 밀집시설이 없어 과도하게 통행량이 증가해 교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또 연면적 49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신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이번 회의에 청구된 29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3건을 인용, 8건을 일부 인용하는 등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줬다.

이문현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와 경기도가 9일 오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교육·기업·농업·청소년 교류·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이낙연 전남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청소년 교류 상생 손잡다

전남도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청소년 교류 등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와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전남-경기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산업·농업·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낙연 전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상생 나눔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파복기속사에 전남 원전

인근 지역 대학생 입주 공동협력 ▲신재생 에너지사업 활성화 위한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글로벌 경쟁력 화훼품종 개발·해외마케팅 공동협력 등 9개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은 전남도가 태양광발전 관련 기술을 지원해 경기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뒤 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양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남 원전 대학생 입주 공동협력은 수원지역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원전 인근 전남 유학생을 수원 파복기속사에 입주

시키고 양 지역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전남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경기 ICT기업이 기술로 상호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융합기술 공모사업 등을 공동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을 전남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경기도 학교 급식에 공급한다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양 지역의 농업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화훼품종 개발·보급을 추진기로 했으며 해외통상사무소를 공동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주목! 20대 국회 광주·전남 새얼굴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 을)

# “차세대 車산업·에너지밸리 등 지역현안 해결 전력 투구할 것”

최경환 국민의당 당선인(복 을·57·사진)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림사건 등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최 당선인은 국민의정부 청와대에서 DJ를 모시기 시작, 대통령 퇴임 후 영면할 때까지 1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DJ는 그에게 정치적 스승이자 삶의 멘토였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간발의 차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난 4년 동안 정치부심하며 지역을 다진 끝에 20대 국회에 진입하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최 당선인은 ‘위기의 시대를 DJ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망한다.

-호남의 선택에 대해 지역주의 및 세속화라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아직도 호남의 선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호남이 왜 저러지. 일시적이겠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호남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소외와 박탈의 구도 속에서 대외 명분에만 충실하라는 것 아니다. 호남이 언제까지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지역적, 정치적 이득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큰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호남 민심이 담긴 함의를 야권이 잘 알아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생각나는 DJ 정치적 유산이 있다면.

▲DJ는 야권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통과는 약간 퀘가 다르지만, 현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합 정치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 경쟁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당선 의미는.

▲정책성과 자존심의 문제다.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화와 민주정부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8년 동안 한국 사회의 근간인 민주화와 남북 관계의 기초인 평화통일 노선이 크게 훼손됐다. 일생을 걸고 추구해왔던 가치가 훼손되고 부정된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3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20대 총선 결과, 야권의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분리됐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DJ가 참여정부 청와대 핵심

정권창출 큰길서 야권 뭉칠것

위기의 시대 DJ정신으로 극복

노동과 복지 분야 천착

산자위·정무위 활동 하고파

관계자에게 “김대중 시대와 노무현 시대 때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시대 때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DJ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송금특검과 열린우리당 창당이 이뤄졌다. 최근의 친노 패권주의의 문제와 국민의당 창당도 결국 여기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번 총선을 통해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지만 결국 정권 창출의 큰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을 희망한다.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는

▲DJ의 후예답게 노동과 복지 등의 분야에 천착하고 싶다. 하지만 광주의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자위와 정무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차세대 자동차 생산 기지 조성, 혁신도시를 매개로 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상화 등이 광주의 최대 현안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지원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요구되는 것은.

▲제당이자 소수당으로 민생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노력해야 한다. 소수당이라는 점에서 인적, 정책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다. 특히, 호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치적 성과는 물론, 예산과 정책 등에서 분투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호남과 거리를 두려는 분들도 있어 걱정스럽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 광주시, 의회 승인없이 예산집행·사업추진 10건

광주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10건이나 되는 등 광주시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은방(국민·북구 6)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주문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심의중인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10개를 이런 사례로 꼽았다. ▲융합스테이

션 플랫폼 실증(35억원)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지원(15억 5000만원) ▲쌍암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3억50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사전절차에서 집행까지 문제점투성이”라며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집행이라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의 행정 공공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졸중,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